

메시지 4

우리의 믿음이신 하나님과 함께 끈질기게 기도함

성경: 막 11:20-24, 눅 18:1-8, 계 8:3-5

I.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 A.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이다 — 막 11:22.
- B. 오직 믿음에서 나온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질 것이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효력이 없다 — 막 11:23.
- C. 믿음은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 막 11:24.
 - 1.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 2. 바라는 것은 장래에 있을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것은 무언가를 이미 성취된 것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 3.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거나 하실 것임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 D.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 나오는 기도는 권위의 기도이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 막 11:23.
 - 1. 권위의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행하시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고 이 권위를 적용하여,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문제들과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 눅 4:7, 마 21:21.
 - 2.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고, 그분께서 명령을 내리신 것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 마 17:20.
 - 3. 권위의 기도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기도이다.
 - 4. 교회는 완전한 믿음을 갖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는 일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이러한 권위의 기도를 할 수 있다 — 마 6:10, 18:19-20.
 - 5. 권위의 기도는 이기는 이들과 많은 관련이 있다. 이기는 이들은 모두 ‘이 산’을 향하여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 막 11:23.

II.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 눅 18:1.

- A. 이 비유의 의미는 심오하며, 우리는 여기에 계시되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 눅 18:7-8.
- B.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과부는 믿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현시대에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과부이다 — 고후 11:2.
- C. 이 비유의 과부처럼(눅 18: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원수인 마귀 사탄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1.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로부터 받는 고난을 말해 준다.
 - 2.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 우리는 원수에게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과부이다.

- D.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불의하게 박해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 벧전 2:20, 3:14, 17, 4:13-16, 19.
1. 수 세기에 걸쳐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정직하고 신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박해를 당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다 — 계 2:8-10.
 2. 우리의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입증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주 예수님은 자신의 박해받는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사용하셨다 — 눅 18:2-6.
 - a. 우리의 하나님은 에스더기가 보여 주는 것처럼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사 45:15)이시다.
 - b.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며, 특별히 우리를 돕고 계실 때 그러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요 14:26, 롬 8:26.
 - c.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상 그분은 감추어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 롬 8:28, 34, 에 4:14.
- E.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에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는 그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달라고 계속 요청하였다. 이렇게 원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 눅 18:1, 3.
1. 우리의 남편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 땅에 과부로 남아 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이신다 — 눅 18:6.
 2. 비록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보이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호소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거듭거듭 그분을 괴롭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그분의 선민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눅 18:7-8상.
- F. 요한계시록 8장 5절은 6장 9절부터 11절까지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암시해 준다.
1.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땅을 심판하는 기도일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곧 불을 땅에 던지시는 것은 성도들이 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한 응답이다 — 계 8:3-5.
- G.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 눅 18:8하.
1.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직역하면 ‘그 믿음’이다. 이것은 과부의 믿음과도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2. 우리를 구원받게 한 믿음은 믿음의 시작 단계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끌어 준 믿음은 연결하는 믿음이다. 연결하는 믿음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도록 하는 믿음이다 — 롬 1:17, 갈 2:20, 요 14:19.
 3. 연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이들이 그분을 맞기 위한 신성한 요구 조건이다 — 눅 18:8하.
 - a. 연결하는 믿음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연결하시는 것이다 — 엡 3:8.
 - b. 연결하는 믿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뢰를 둔다 — 고후 1:9.
 - c.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연결하는 믿음에 의해 사는 많은 이기는 이들을 찾으실 것이고, 그분께서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을 위해 그들을 보물들로 여기실 것이다 — 눅 18:8하, 계 20:4, 6.